

# 지방 중소도시의 유출인구 직종 특성 분석

## The Analysis of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Emigrants from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Non-metropolitan Areas in Korea

최예슬 Choi Ye Seul\*

### Abstract

In the last decades, many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in Korea have been experiencing dramatic population decline due to outflows of population. The on-going population outflows, especially working-age population outflows, will negatively affect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of cities. However, even though many studies have reported push and pull factors of migration, there has been very little research reported on the characteristics of working-age population outflows from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give an overview of the outflow of working age population and to examine th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emigrants from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during 2010-2015. The results show that young and highly educated individuals are most likely to migrate from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to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s. Moreover, occupations with high outflow rates are generally professions and technicians, while occupations with low outflow rates are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workers, plant and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and elementary occupations. This trend is more likely to create intense job polarization within the non-metropolitan areas and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Keywords: Working Age Population, Population Outflows, Emigrants,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Non-metropolitan Areas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방소멸’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라는 인구 문제를 마주한 우리 사회에서 비수도권으로 대표되는 지방 인구의 감소는 또 다른 인구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상림, 이지혜, Bernhard Köppen, 임소정 외 2018). 마스

다 히로야(増田寛也)는 2014년 일본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보고서와 책을 발간해 일본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소멸과 지역 간 불평등에 대한 큰 위기의식을 드러냄으로써(차미숙 2016),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지방소멸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가 국토 전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또는 지방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더 빠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Assistant Research Fellow, National Territorial & Regional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yschoi@krihs.re.kr

르고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김준영 2019). 향후 지역 간 인구 양극화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인구유출은 지방 중소도시 내 급격한 인구감소를 야기하고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상림, 이지혜, Bernhard Köppen, 임소정 외(2018)는 우리나라 지방인구 변화가 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자연적 증감에 기인하기보다는 인구유출 및 유입으로 인한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김준영(2019)은 비수도권 청년인구 유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지만, 중·단기적으로 인구변동을 좌우하는 것은 인구의 전출과 전입이라 밝힌 바 있다.

지방 인구유출을 다뤘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생산가능인구로 대표되는 노동인구의 '지방 엑소더스(exodus, 대탈출)' 현상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노동인구의 지방 유출은 해당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감소시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해당 지역 내 대학과 기업의 경쟁력 또한 약화시킨다(문영만, 홍장표 2017; 윤영모 2018; 이시형, 김결 2018). 지방 중소도시 내 생산가능인구의 수도권 또는 타 지방 대도시로의 선별적 이동(selective migration)은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어 지방 중소도시에서 유출되는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연구가 여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지방소멸' 논의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국내 인구감소위기의 지방 중소도시 출현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 인구감소 문제와 이로 인한 국토공간 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접근은 지방소멸 담론 등장 이전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에(이상림, 이지혜, Bernhard Köppen, 임소정 외 2018),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유출은 새로운 주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방 인구유출과 지역 간 인구이동을 연결시켜 다뤄왔던 다수의 국내 관련 연구들은 개인과 지역 수준에서 지역 간 인구이동 요인을 파악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인구이동의 지리적 패턴을 탐색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었을 뿐, 인구감소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인구유출, 그중에서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의 유출과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일례로 엄창욱, 노광욱, 박상욱(2018), 안아림, 임보영, 마강래(2019)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의 유출 및 유입인구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나, 이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데 그치고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지방 인구유출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이해되어 온 탓에, 지방 유출인구의 상당수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내 혁신도시 등의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최근의 인구이동 양상 또한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이상림, 이지혜, Bernhard Köppen, 임소정 외 2018).

인구의 역외 유출 문제에 직면한 많은 지방 중소도시의 자신들의 지역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인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노동인구는 다른 지역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이 더 큰 경우, 자신에게 더 높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높이려하기 때문이다(Buch, Hamann, Niebuhr, and Rossen 2014). 하지만 문제는 지방 중소도시 내 직종 현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직종 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들 도시가 천편일률적으로 고학력의 젊은 인구를 지역에 유치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전략은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

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소도시가 생산가능인구를 유인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현 시점에, 첫 단계로서 지방 중소도시에서 유출되는 생산가능인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들의 직종 특성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0~2015년 기간 동안 국내 지방 중소도시에서 유출되는 인구 중에서도 생산가능인구에 주목하여, 생산가능인구의 유출 현황과 이들의 직종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 중소도시의 유출인구 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유출범주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유출범주는 지방 내 타 중소도시로의 이동, 둘째 유출범주는 지방 내 대도시로의 이동, 마지막 세 번째 유출범주는 수도권 소재 도시로의 이동이다.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중소도시에서 유출되는 생산가능인구는 어떤 도시(비수도권 소재 다른 중소도시, 비수도권 소재 대도시, 수도권 소재 도시)로 이동하며, 그 비율은 어떠한가? 둘째, 유출범주별 지방 중소도시에서 유출되는 생산가능인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유출범주별로 어떤 직종을 가진 생산가능인구가 지방 중소도시에서 유출되며, 이들 직종의 특성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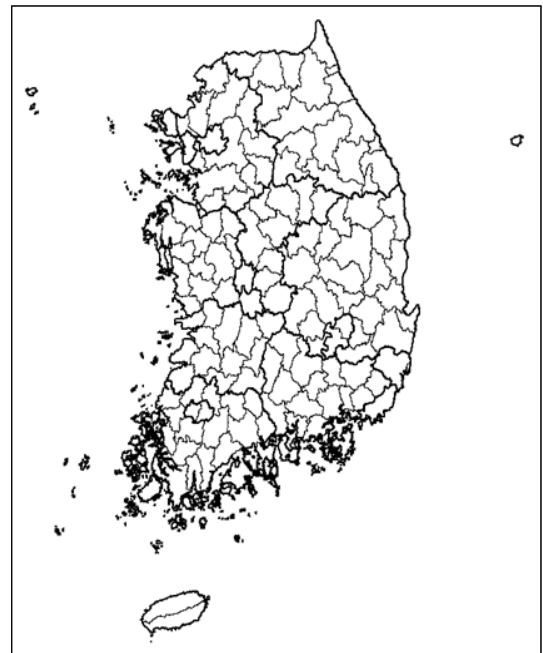
## 3. 연구의 시간적 범위 및 공간적 단위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설정한 2010년 기준 137개 지역노동시장권(Local Labour Market Areas: LLMAs)을 적용하였다

(<Figure 1> 참조).

지역노동시장권은 전국 수준보다는 하위 공간 단위면서, 시·군·구보다는 상위 공간 단위이다. 이 권역은 지역의 공간적 의존성을 통근(commuting)이라는 기능적 특성에 따라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동질적인 권역으로 구획한 기능지역(functional region)으로,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구직활동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채용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적 영역으로 정의된다(윤윤규, 배기준, 윤미래, 이상호 외 2012). 개인의 주된 이동사유가 직업이라는 점과 지방 중소도시에서 유출되는 생산가능인구의 직종 특성을 살펴보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통근, 노동공급 및 수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영역인 지역노동시장권이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ure 1 \_ Local Labour Market Areas in Korea



Source: Yoon, Bae, Yoon and Lee et al.(2012), Modified.

## II.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 1. 지방 중소도시 정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대도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는 시급도시 중 인구 50만 명 미만의 도시로 간주될 수 있다. 지역 노동시장권을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설정한 본 연구

에서 지방 중소도시는 비수도권 소재 인구 50만 명 미만의 지역노동시장권을, 지방 대도시는 비수도권 소재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역노동시장권을 일컫는다. 지역노동시장권 수준에서 살펴본 2010년 기준 국내 지방 중소도시는 112개, 지방 대도시는 11개, 수도권 소재 도시는 14개이며, 각 도시 유형에 속한 지역노동시장권에 대한 정보는 <Table 1>의 내용과 같다.

Table 1\_ Classification of Cities at the LLMA Level

Variable	City Typ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n=112)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s (n=14)	Large-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n=11)
Region	LLMAs	LLMAs	LLMAs
Seoul	-	Seoul	-
Gyeonggi	-	Suwon·Hwaseong·Osan, Ansan·Siheung, Uijeongbu, Pyeongtaek, Icheon, Anseong, Yeosu, Yangpyeong, Ganghwa, Gapyeong, Yeoncheon	-
Incheon	-	Incheon, Ongjin	-
Busan	-	-	Busan
Daegu	-	-	Eastern and Western Daegu
Gwangju	Gwangju Gwangsan-gu and Jangseong-gun	-	Eastern Gwangju
Daejeon	-	-	Daejeon
Ulsan	Ulsan Dong-gu	-	Central, Southern and Northern Ulsan and Ulju
Gangwon	Wonju, Chuncheon, Gangneung, Donghae, Sokcho, Hongcheon, Samcheok, Taebaek, Pyeongchang, Cheorwon, Hoengseong, Jeongseon, Yeongwol, Inje, Yangyang, Goseong, Yanggu, Hwacheon	-	-
Chungbuk	Chungju, Jecheon, Eumseong, Goesan·Jeungpyeong, Okcheon, Yeongdong, Boeun, Danyang	-	Cheongju
Chungnam	Asan, Seosan, Dangjin, Nonsan·Gyeryong, Gongju, Boryeong, Hongseong, Yesan, Buyeo, Taean, Seocheon, Keumsan, Cheongyang	-	Cheonan
Jeonbuk	Iksan, Gunsan, Jeongeup, Namwon, Gimje, Gochang, Buan, Sunchang, Imsil, Muju, Jinan, Jangsu	-	Jeonju
Jeonnam	Mokpo·Yeongam, Yeosu, Suncheon, Gwangyang, Goheung, Haenam, Naju, Muan, Hwasun, Wando, Yeonggwang, Sinan, Boseong, Jangheung, Gangjin, Jindo, Hapyeong, Gokseong, Gurye	-	-

(continued)

Table 1 \_Classification of Cities at the LLMAs Level (continued)

Variable	City Typ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n=112)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s (n=14)	Large-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n=11)
Gyeongbuk	Gyeongju, Pohang Buk-gu, Pohang Nam-gu, Gyeongsan, Andong, Gimcheon, Sajngju, Yeongju, Yeongcheon, Mungyeong, Uisung, Yecheon, Uljin, Cheongdo, Seongju, Yeongdeok, Bonghwa, Cheongsong, Gunwi, Yeongyang, Ulleung	-	Gumi-Chilgok
Gyeongnam	Gimhae, Masan-Haman, Jinju, Geoje, Jinhae, Tongyeong, Sacheon, Miryang, Geochang, Changnyeong, Goseong, Hapcheon, Namhae, Hadong, Hamyang, Sancheong, Uiryeong	-	Changwon
Jeju	Jeju, Seogwipo	-	-

## 2.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지역 간 이동의 주체인 개인에 대한 분석자료로는 2015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 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 자료는 개인의 지역 간 이동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5년 전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권을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내 시·군·구 수준에서 코딩된 5년 전 거주지 즉, 2010년 당시 거주지와 2015년 현재 거주지를 지역노동시장권 코드와 매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지방 중소도시의 생산가능인구  $i$ 의 유출 여부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시자료 내 설문문항 중 생산가능인구  $i$ 의 5년 전 거주지가 지방 중소도시  $j$ 이며, 현재거주지가 5년 전 거주지인 지방 중소도시  $j$ 가 아닌 경우에 한해 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개인별 직종 변수는 충분한 표본 수 확보를 위해 소분류(3 digit, 153개(군인 제외)) 수준에서 코딩

된 제6차(2015년) 한국표준직업분류 표본 자료를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2 digit, 51개(군인 제외)) 수준으로 매칭하는 작업을 거친 후, 개인별 직종 코드와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사전」의 직업 정보 자료를 매칭하여 유출인구의 직종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인구주택총조사’ 원시자료는 5년 전 거주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부득이하게 5년 전 개인의 직종, 교육 수준 등의 개인의 특성이 현재 시점과 동일함을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자 이동주체인 개인 표본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에 속하는 가구주로 한정하였으며, 지방 중소도시를 유출지로 설정하고 있는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 전 거주지가 지방 중소도시인 경우로 표본을 한정하였다. 또한 연령, 5년 전 거주지, 현재 거주지 등 주요 핵심 변수에 결측치 및 이상치를 가진 표본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지방 중소도시 인구유출 분석 및 유출인구 직종 분석에 활용된 표본 수는 101,178명이다.

### III. 지방 중소도시의 유출인구 직종 특성

#### 1. 지방 중소도시의 유출인구 특성

2010~2015년 5년 동안 지방 중소도시의 생산가능인구의 유출 여부 및 유출범주별 빈도표(<Table 2> 참조)에 따르면, 약 25%(25,824명)의 생산가능인구가 해당 기간 동안 지방 중소도시에서 다른 지방 중소도시, 지방 대도시, 수도권 소재 도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75%의 생산가능인구는 5년 전 거주지인 지방 중소도시에서 타 도시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5년 기간 동안 지방 중소도시로부터 유출된 생산가능인구 25,824명의 이동패턴을 유출범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수도권 소재 도시로 가장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

중소도시에서 다른 지방 중소도시로는 가장 적게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다른 지방 도시로 이동한 경우(16,003명)가 수도권 도시로 이동한 경우(9,821명)에 비해 약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상림, 이지혜, Bernhard Köppen, 임소정 외(2018)가 지적했던 것과 같이 지방 중소도시 유출 생산가능인구의 상당수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내 다른 도시로 더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출인구와 비유출인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유출인구에 비해 유출인구는 평균 연령이 약 17세 정도 낮고, 교육수준에서는 비유출인구에 비해 유출인구에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고학력·젊은 층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또한 유출인구의 경우, 비유출인구에 비해 기혼 비율이 낮고, 대부분이 거주기간이 10

Table 2\_ Frequency Distribution of Types of Migration

Category	Frequency	Percent (%)	Category	Frequency	Percent (%)
Migration	25,824	25.52	To Another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7,894	30.57
Non-migration	75,354	74.48	To Large-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8,109	31.40
			To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s	9,821	38.03
Total	101,178	100	Total	25,824	100

Table 3\_ Characteristics of Migrants and Non-migrants

Category		Non-migrants (n=75,354)	Migrants (n=25,824)	From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To Another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n=7,894)	To Large-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n=8,109)	To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s (n=9,821)
		Mean	Mean	Mean	Mean	Mean
Age		49.79	32.60	36.48	31.16	30.66
Educational Level	With Bachelor's Degrees and above	27.80%	46.49%	43.90%	40.92%	53.17%
	Less than High School Diploma	29.39%	6.01%	8.51%	5.01%	4.82%
Marital Status (Married=1, Otherwise=0)		68.28%	25.78%	37.75%	23.81%	17.78%
Period of Current of Residence (Over Ten Years's Duration=1, Otherwise=0)		43.52%	0.22%	0.25%	0.19%	0.21%
Home Ownership (Owned=1, Otherwise=0)		65.81%	8.01%	14.93%	7.65%	2.75%
Family Structure (Living with Children=1 Otherwise=0)		40.04%	13.49%	18.53%	14.37%	8.70%

년 이하였으며, 주택 자가소유 비율과 자녀가 있는 가구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이동 선별성을 분석했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젊은 층일수록, 고학력자일수록, 그리고 미혼인 자가 기혼자에 비해 이동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밝히고 있다(최진호 2008).

유출인구를 다시 유출범주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방 중소도시에서 수도권 소재 도시로 이동한 인구의 평균 연령은 약 30.6세로 다른 유출범주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고, 수도권으로의 유출인구 중 대학 졸업 이상 인구는 2명 중에 1명꼴(53.17%)로 나타나 비수도권에서 유출된 고학력·젊은 층 즉, 20·30대 대학졸업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관찰된다.<sup>1)</sup> 이외에도 수도권으로의 유출인구는 다른 유출범주에 비해 기혼 비율 및 자가소유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지방 중소도시의 유출인구 직종 특성

직종별 유출비율은 2010~2015년 기간 동안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동한 해당 직종의 근로자수를 지방 중소도시 내 해당 직종의 총 종사자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출범주별로 지방 중소도시의 유출인구의 직종 특성을 분석하였다.

### 1) 지방 중소도시에서 타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한 경우

2010~2015년 기간 동안 지방 중소도시에서 다른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한 생산가능인구의 직종을 살펴보면(<Table 4> 참조), 유출비율 상위 10개 직종은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25), 전문 서비스 관리직(13),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85),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7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84), 보건·

**Table 4\_ The Outflow Rate: Top 10 and Bottom 10 Occupations**  
(To Another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Top 10 Occupations				
Ranking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Code)	The Number of Workers that are Employed in the Occup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The Number of Migrants	Outflow Rate(%)
1	Education Professionals and Related Occupations (25)	3,425	561	16.38
2	Professional Services Management Occupation (13)	410	67	16.34
3	Machine Production and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 (85)	2,039	285	13.98
4	Metal Coremakers Related Trade Occupations (74)	1,702	237	13.92
5	Metal and Nonmetal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84)	1,238	170	13.73
6	Health, Social Welfare and Religion Related Occupations (24)	3,761	494	13.13
7	Engineering Professionals and Technical Occupations (23)	2,624	312	11.89
8	Electrical and Electronic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86)	1,666	198	11.88
9	Construction and Mining Related Trade Occupations (78)	220	26	11.82
10	Other Technical Occupations (79)	805	95	11.80

(continued)

1) 지방 중소도시에서 수도권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만 25세부터 만 35세까지의 연령에서는 해당 연령의 이동 인구에서 대학졸업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Table 4\_** The Outflow Rate: Top 10 and Bottom 10 Occupations  
(To Another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continued)

Bottom 10 Occupations				
Ranking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Code)	The Number of Workers that are Employed in the Occup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The Number of Migrants	Outflow Rate(%)
1	Agricultural, Livestock Related Skilled Occupations (61)	12,640	172	1.36
2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Other Service Elementary Occupations (99)	3,973	96	2.42
3	Skilled Fishery Occupations (63)	1,211	32	2.64
4	Textile, Clothing and Leather Related Trade Occupations (72)	222	9	4.05
5	Cleaning and Guard Related Elementary Occupations (94)	1,796	90	5.01
6	Food Processing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81)	692	35	5.06
7	Caregiving, Health and Personal Service Workers (42)	1,592	81	5.09
8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fessionals and Technical Occupations (22)	771	42	5.45
9	Wood and Furniture, Musical Instrument and Signboard Related Trade Occupations (73)	207	12	5.80
10	Sales and Customer Service Managers (15)	103	6	5.83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24),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23),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86),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78), 기타 기능 관련직(79)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종의 대부분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수준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8)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유출범주에서 유출비율 하위 10개 직종은 농·축산 관련직(61),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99), 어업 숙련직(63),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72),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94),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81),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4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22),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73),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15)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종의 대부분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수준에

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6), 단순 노무 종사자(9)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다른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한 생산가능인구의 직종 특성을 살펴보면, 유출비율 상위 10개 직종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 및 전기·기계·금속·건설 분야의 기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출비율 하위 10개 직종은 농·축·어업 등 1차 산업 숙련직 또는 1차 산업 관련 서비스직, 기계·제조 관련 기능직, 또는 단순 노무직 등으로 나타나, 지방 중소도시에서 다른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하지 않고 남아있는 직종들은 대체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숙련수준을 필요로 하기 보다는 작물재배, 동물 사육 등 1차 산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물에 대한 단순반복적인 직무기능을 요구하고, 때로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을 요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다(황수경 2007; 통계청 2017).

2)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방 대도시로 이동한 경우

<Table 5>는 2010~2015년 기간 동안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방 대도시로 유출된 상위 10개와 하위 10개 직종을 보여준다. 지방 대도시로의 유출비율 상위 10개 직종은 전자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86),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21),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39),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53),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15),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22),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78),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24),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83),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44)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종은 대체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수준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8)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직종은 서비스 및 판매 등 서비스직의 성격을 띤다.

**Table 5\_ The Outflow Rate: Top 10 and Bottom 10 Occupations**  
(To Large-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Top 10 Occupations				
Ranking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Code)	The Number of Workers that are Employed in the Occup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The Number of Migrants	Outflow Rate(%)
1	Electrical and Electronic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86)	1,666	390	23.41
2	Science Professional and Related Occupations (21)	345	76	22.03
3	Customer Service, Information Desk, Statistical Survey and Other Clerical Occupations (39)	710	155	21.83
4	Mobile, Door to Door and Street Sales Related Occupations (53)	842	148	17.58
5	Sales and Customer Service Managers (15)	103	16	15.53
6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fessionals and Technical Occupations (22)	771	116	15.05
7	Construction and Mining Related Trade Occupations (78)	220	31	14.09
8	Health, Social Welfare and Religion Related Occupations (24)	3,761	517	13.75
9	Chemical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83)	874	117	13.39
10	Cooking and Food Service Occupations (44)	5,064	672	13.27
Bottom 10 Occupations				
Ranking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Code)	The Number of Workers that are Employed in the Occup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The Number of Migrants	Outflow Rate(%)
1	Skilled Fishery Occupations (63)	1,211	1	0.08
2	Agricultural, Livestock Related Skilled Occupations (61)	12,640	33	0.26
3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Other Service Elementary Occupations (99)	3,973	54	1.36
4	Skilled Forestry Occupations (62)	119	2	1.68
5	Driving and Transport Related Occupations (87)	4,674	208	4.45
6	Water Treatment and Recycling Related Operating Occupation (88)	215	10	4.65
7	Production Related Elementary Occupations (93)	393	20	5.09
8	Food Processing Related Trades Occupations (71)	890	50	5.62
9	Metal Coremakers Related Trade Occupations (74)	1,702	96	5.64
10	Cleaning and Guard Related Elementary Occupations (94)	1,796	102	5.68

다른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한 유출범주에 비해 지방 대도시로 이동한 유출범주는 대체적으로 직종별 유출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유출비율 상위 3개 직종인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86),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21),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39)은 지방 중소도시 내 해당 직종의 총 근로자수 대비 지방 대도시로의 유출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유출범주에서 과학 분야·전기전자·상담 및 안내 및 통계 관련 사무직 분야의 직종 인력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유출범주에서의 유출비율 하위 10개 직종은 어업 숙련직(63), 농·축산 관련직(61),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99), 임업 숙련직(62), 운전 및 운송 관련직(87),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88),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93),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71),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7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94)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직종의 대부분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상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 단순 노무 종사자(9)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및 하위 10개 직종을 바탕으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방 대도시로 이동한 생산가능인구의 직종 특성을 살펴보면, 유출비율 상위 10개 직종은 전문가 및 기술자라는 점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유출비율 상위 10개 직종과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지방 대도시로 이동한 인구의 직종은 과학기술분야의 미래 유망 직종인 과학, 컴퓨터, 통신기술, 전자 및 전자, 화학 등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라는 점에서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한 유출인구의 직종과 차이가 있다. 유출비율 하위 10개 직종은 농·축·어업 등 1차 산업 숙련직 및 단순 노무직, 기계조작·제조·가공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 기능직 및 노무직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됨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로의 유출인구의 직종 특성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지방 중소도시에서 수도권 도시로 이동한 유형

<Table 6>는 2010~2015년 기간 동안 지방 중소도

**Table 6\_ The Outflow Rate: Top 10 and Bottom 10 Occupations (To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s)**

Top 10 Occupations				
Ranking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Code)	The Number of Workers that are Employed in the Occup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The Number of Migrants	Outflow Rate(%)
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fessionals and Technical Occupations (22)	771	456	59.14
2	Culture, Arts and Sports Professionals and Related Occupations (28)	1,253	493	39.35
3	Textile, Clothing and Leather Related Trade Occupations (72)	222	74	33.33
4	Business and Finance Professionals and Related Occupations (27)	817	260	31.82
5	Customer Service, Information Desk, Statistical Survey and Other Clerical Occupations (39)	710	180	25.35
6	Science Professional and Related Occupations (21)	345	79	22.90
7	Electrical and Electronic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86)	1,666	325	19.51
8	Public, Business Administration, Marketing Management Occupations (12)	114	22	19.30
9	Engineering Professionals and Technical Occupations (23)	2,624	490	18.67
10	Sales Occupations (51)	1,623	302	18.61

(continued)

**Table 6\_** The Outflow Rate: Top 10 and Bottom 10 Occupations (To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s) (continued)

Bottom 10 Occupations				
Ranking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Code)	The Number of Workers that are Employed in the Occup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The Number of Migrants	Outflow Rate(%)
1	Skilled Fishery Occupations (63)	1,211	0	0.00
2	Agricultural, Livestock Related Skilled Occupations (61)	12,640	19	0.15
3	Skilled Forestry Occupations (62)	119	1	0.84
4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Other Service Elementary Occupations (99)	3,973	69	1.74
5	Metal Coremakers Related Trade Occupations (74)	1,702	64	3.76
6	Professional Services Management Occupation (13)	410	19	4.63
7	Food Processing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81)	692	34	4.91
8	Driving and Transport Related Occupations (87)	4,674	236	5.05
9	Water Treatment and Recycling Related Operating Occupation (88)	215	12	5.58
10	Food Processing Related Trades Occupations (71)	890	55	6.18

시에서 수도권 도시로 유출된 상위 10개와 하위 10개 직종을 보여준다. 수도권 도시로의 유출비율 상위 10개 직종은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22),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28),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72),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27),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39),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21),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86),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12),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23), 영업직(51)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직종 가운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수준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에 속하는 직종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으로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유출 집중 현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22),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39) 직종에서는 비수도권 내 다른 도시로의 이동하는 인구보다 수도권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이들 직종의 수도권 집중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출비율 상위 5개 직종인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22),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28),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72),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27),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39)은 지방 중소도시 내 해당 직종의 총 근로자수 대비 수도권 도시로의 유출 인구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22)의 수도권으로의 유출 비율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관찰되어, 이 직종에 속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221),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222),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223),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224),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225)의 인력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유출범주에서의 유출비율 하위 10개 직종은 어업 숙련직(63), 농·축산 관련직(61), 임업 숙련직(62),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99),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74), 전문 서비스 관리직(13),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81), 운전 및 운송 관련직(87),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88),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7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종의 대부분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상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

사자(7), 단순 노무 종사자(9)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유출범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농축산업·어업·임업 관련 직종의 유출비율은 1% 내외로 나타나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낮은 유출비율을 보였다.

상위 10개 및 하위 10개 직종을 바탕으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수도권 도시로 이동한 생산가능인구의 직종 특성을 살펴보면, 유출비율 하위 10개 직종은 농·축·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직종과 기계조작·제조·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 기능직 및 노무직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유출범주들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출비율 상위 10개 직종은 비수도권 내 타 도시로 이동하는 유출범주들과 달리, 대체로 고부가가치·고임금의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및 기술직 그리고 경영·금융 종사자로 관찰됨에 따라, 이들의 지방유출 및 수도권 집중 현상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임금 및 일자리 격차를 야기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 4) 종합

세 가지 유출범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유출비율이 높은 직종 특성을 살펴보면, 유출범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출비율 상위 10개 직종은 대체적으로 전문화된 고학력·고숙련 전문가, 기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특정 분야 내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뛰어난 ‘인지적 숙련(cognitive skills)’을 보유한 직종으로 알려져 있다(황수경 2007).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사전」<sup>2)</sup>에 따르면, 이들

직종은 대체로 고등교육과 높은 숙련 수준을 요하며, 주어진 자료(data)를 종합·조정·분석·계산하는 능력과 사람(people)에 대해서 자문·협의·감독하는 능력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유출범주 모두에서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86)의 높은 유출비율이 관찰되었고,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방 대도시 및 수도권 도시로의 유출에서는 공통적으로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21),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22),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23),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39),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86)의 유출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 중소도시로부터의 이들 직종의 유출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의 산업 및 일자리 기반 약화가 우려된다.

다만 지방 중소도시에서 다른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한 경우, 유출비율이 높은 직종들이 대체적으로 기계·조작 등의 기능/기술직의 성격을 보였다면, 지방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우에서는 기능/기술직과 더불어 사회복지·종교·상담 등 서비스직 관련 전문가의 유출이 관찰되었다. 반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 앞선 두 유출범주에 비해 과학기술·공학·경영·금융 등의 고학력과 고숙련을 요하는 고임금·고부가가치 분야 및 문화예술 산업 분야의 전문가의 유출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고임금·고부가가치 산업과 직종 기반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내 이들 직종들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출비율이 낮은 직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세 가지 유출범주에서 공통적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 단순 노무 종사자

2)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하는 「한국직업사전(Korean 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은 우리나라 직업 총람으로서(직업수 12,823개), 체계적 직무분석을 통해 해당 직무에서 수행하는 작업과정(수행직무), 각종 부가직업정보(정규교육, 숙련기간, 작업강도, 자격면허 등), 직업/산업분류 코드를 제공한다.

(9)가 관찰되었다. 이 직종들은 대체로 높은 교육수준과 숙련수준을 필요로 하는 인지적 숙련보다는 조작성, 수동조작, 단순반복적 업무 등 사물(thing)을 대상으로 한 업무 수행과 육체적인 힘을 요구하는 신체적 숙련(physical skills) 기능을 보유한 직종이다(황수경 2007). 특히 유출비율 하위 10개 직종 중에서, 특히 1차 산업에 속하는 농·축·어업 관련 직종의 유출비율은 3% 이하로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1차 산업에 속하는 직종들은 유출되지 않고 지방 중소도시에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앞선 분석 결과와 종합하면, 고학력·고숙련을 요하는 고임금·고부가가치 직종들은 수도권으로 향하는 반면, 1차 산업 종사자, 단순 기계 조작 기능직, 단순 노무직 등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이나 숙련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육체적 힘을 주로 사용하는 직종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도시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내 도시들 간 불균형뿐만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들 간 임금 및 일자리 불균형 또한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IV. 결론

본 연구는 2010~2015년 기간 동안 지역노동시장권을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하여, 국내 지방 중소도시에서 유출되는 생산가능인구에 주목하여, 생산가능인구의 유출 현황 및 직종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의 지방 인구유출 현실을 반영하고,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지방 중소도시로부터 생산가능인구가 향하는 유출지로 ‘지방 내 타 지방 중소도시’, ‘지방 대도시’, ‘수도권 도시’를 설정하였다. 지역노동시장권 수준에서 살펴본 2010년 기준 국내 지방 중소도시는 112개, 지방 대도시는 11개, 수도권 도시는 14개

로 나타났다.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의 약 25%가 2010~2015년 사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다른 지방 중소도시, 지방 대도시, 수도권 소재 도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5%는 이동하지 않고 지방 중소도시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표본을 유출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방 중소도시에서 수도권 소재 도시로 가장 많이 이동하였으며, 지방 중소도시에서 다른 지방 중소도시로는 가장 적게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방 타 도시로 이동하는 수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수보다 많아, 비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출인구 특성을 살펴보면,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젊은 층과 고학력자의 유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히 수도권으로의 유출인구 중 대학졸업 이상 인구는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으로의 고학력·젊은 층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유출범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방 대도시와 수도권 도시로 향하는 지방 중소도시 유출인구의 직종 특성을 살펴보면, 유출비율 상위 10개 직종은 대체로 과학·공학·경영·금융 등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의 전문가, 기술자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출비율 하위 10개 직종은 1차 산업 종사자, 단순 기계 조작 기능직, 단순 노무직 등으로 확인되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일자리의 절대적인 수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고학력·고숙련·고임금·고부가가치 창출의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타 도시로의 생산가능인구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주요 유출 원인과 맞물려, 지방 중소도시에서 고학력 인구가 더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대도시로의 이동을 선택하는 추세 또한 지속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인적자본 격차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규용, 고영우, 김우영, 오민홍 외 2015). 그리고 지방 대도시와 수도권 도시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이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만약 현재 지방 중소도시에 남아 있는 고학력·고숙련·고임금·고부가가치 창출 직종의 타 도시로의 유출이 지속된다면, 단순히 고학력·고숙련·고임금 직종뿐만 아니라 향후 과학기술융합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직종<sup>3)</sup>들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방 대도시와 수도권으로의 고학력·고숙련 및 고임금·고부가가치 창출 직종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향후 지방 중소도시·지방 대도시, 지방-수도권 간 직종 양극화 양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방 중소도시에서 유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1차 산업 종사자, 단순 기계 조작 기능직, 단순 노무직 등은 대체로 낮은 수준의 직업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들은 향후 인공지능·로봇으로 인해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 직업군’으로도 꼽힌 바 있다(박가열, 천영민, 홍성민, 손양수 2016; 오호영 2017). 따라서 향후 지방 중소도시의 직종 기반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의 일자리 창출 및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들 도시의 직종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많은 도시들이 그래왔듯이, 지방 대도시 또는 수도권 도시의 미래 유망 신산업 유치 전략을 지방 중소도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지방 중소도시의 약화된 산업기반과 인력수급 문제로 인해 정책이 실패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재원과 산업기반 등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대도시의 미래 산업 및 일자리 육성 전략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추진하기보다는, 해당 지방 중소도시의 산업 및 직종 현황 그리고 전망에 맞게 전략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는, 노동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 중소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직종 현황과 전망을 고려하여 이들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 및 일자리 기반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틈새 산업과 직종을 선별하여 이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향상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1. 김동규, 김중진, 김한준, 최영순, 최재현. 2017.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전망.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  
Kim Dong-kyu, Kim Jung-jin, Kim Han-jun, Choi Young-sun and Choi Jae-hyun. 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Jobs*. Eumseonggun: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 김준영. 2019.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과 수도권 집중: 최근의 변화. 고용동향브리프 봄호.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  
Kim Jun-young. 2019. Outflow of youth population from the non-metropolitan area and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Employment Trend Brief*, Spring. Eumseonggun: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3. 문영만, 홍장표. 2017. 청년층의 노동시장 격차 및 지역인재 유출요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5권, 2호: 165-187.  
Moon Young-man and Hong Jang-pyo. 2017. Young generation's labour market gap and local brain drain:

3) 김동규, 김중진, 김한준, 최영순 외(2017)는 ‘4차 산업혁명 유망 직업군’으로 사물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가상(증강·혼합)현실 전문가, 3D프린터 전문가, 드론전문가, 생명과학연구원, 정보보안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봇공학자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Focusing o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5 no.2: 165-187.
4. 박가열, 천영민, 홍성민, 손양수. 2016. 기술변화에 따른 일 자리 변화.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  
Park Ga-yeol, Cheon Young-min, Hong Sung-min and Son Yang-soo. 2016. *Job Change due to Technological Change*. Eumseonggun: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5. 안아림, 임보영, 마강래. 2019. 지방 중소도시 유출·유입 인구 특성 비교에 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7권, 2호: 21-38.  
Ahn Ah-rim, Im Bo-young and Ma Kang-rae. 200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igration to and from the small and medium sized city. *Korea Real Estate Society* 37, no.2: 21-38.
  6. 오호영. 2017.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약계층 및 전공별 영향. KRIVET Issue Brief 123호.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Oh Ho-young. 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impact on vulnerable class and major. *KRIVET Issue Brief* no.123.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7. 윤윤규, 배기준, 윤미례, 이상호, 최효미, 김준영, 신인철 외. 2012.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0: 방법론, 설정 및 평가.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Yoon Yoon-gyu, Bae Ki-jun, Yoon Mi-rye, Lee Sang-ho, Choi Hyo-mi, Kim Jun-young and Shin In-cheol et al. 2008. *Local Labour Market Areas in Korea*. Seoul: Korea Labor Institute.
  8. 윤영모. 2018.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과제. 국토정책 Brief 693호. 세종: 국토연구원.  
Yoon Young-mo. 2018.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migration and policy issues in innovative cities and their surrounding areas. *KRIHS Policy Brief* no.693.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9. 엄창옥, 노광욱, 박상우. 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지역사회연구* 26권, 3호: 259-283.  
Um Chang Ok, Roh Kwang Uk and Park Sang Woo. 2018.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settlement and return to the local youth.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6, no.3: 259-283.
  10. 이규용, 고영우, 김우영, 오민홍, 이상호, 홍성호. 2015. 지역 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노동시장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Lee Kyu-yong, Ko Young-woo, Kim Woo-young, Oh Min-hong, Lee Sang-ho and Hong Sung-hyo. 2015. *Labor Market Research to Establish Regional Employment Strategy*. Sejong: Korea Labor Institute.
  11. 이상림, 이지혜, Bernhard Köppen, 임소정, 성백선. 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ee Sang-Lim, Lee Ji-Hye, Bernhard Köppen, Lim So-Jeong and Sung Baek-Seon. 2018. *Regional Population Crisis and Migration Perspectives in Korea*.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2. 이시형, 김걸. 2018. 격차분석 기법을 활용한 공주시의 축소 도시 사례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1권, 3호: 35-46.  
Lee Si-hyoung and Kim Kirl. 2018. A case study on the shrinking city of Gongju-si based on raster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21, no.3: 35-46.
  13. 차미숙. 2016.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국토정책 Brief 555호. 안양: 국토연구원.  
Cha Mi-suk. 2016. In an era of population decline, Japan's local creation strategy and local spatial restructuring plan. *KRIHS Policy Brief* no.555.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4. 최진호. 2008. 한국 지역 간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이동 이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1권, 3호: 159-178.  
Choi Jin-ho. 2008. Selectivity and reasons for move of inter-provincial migrants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pital regio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 no.3: 159-178.
  15. 통계청. 2017. 한국표준직업분류. 대전: 통계청.  
Statistics Korea. 2017.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Daejeon: Statistics Korea.
  16. 통계청 MDIS. 인구주택총조사. <https://mdis.kostat.go.kr/index.do>  
Statistics Korea MDIS.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https://mdis.kostat.go.kr/index.do>
  17. 한국고용정보원. 2019. 한국직업사전.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9. *Korea Dictionary of Occupations*. Seoul: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18. 황수경. 2007. 서비스화가 일자리 숙련 구조에 미친 영향: 인지적 숙련 및 상호적 숙련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0 권, 3호: 1-41.  
Hwang Soo-kyeong. 2007. Tertiariation and changes in the demand for job-based skills: Focusing on cognitive skills and interactive skills.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30, no.3: 1-41.

19. Buch, T., Hamann, S., Niebuhr, A. and Rossen, A. 2014. What makes cities attractive? The determinants of urban labour migration in Germany. *Urban Studies* 51, no.9: 1960-1978.

- 논문 접수일: 2020. 10. 10.
- 심사 시작일: 2020. 10. 27.
- 심사 완료일: 2020. 12. 15.

---

## 요약

주제어: 지방 중소도시, 생산가능인구, 인구유출, 유출인구, 직종 특성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을 직면한 우리 사회에서 비수도권으로 대표되는 지방 인구감소는 또 다른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 중소도시부터 인구 감소 현상이 더 뚜렷하게 관찰된다.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유출은 향후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10~2015년 기간 동안 지역노동시장권을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하여, 국내 지방 중소도시에서 유출되는 생산가능인구의 유출 현황과 이들의 직종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출인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방 중소도시에는 젊은 층과 고학력자의 유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수도

권으로의 고학력·젊은 층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유출범주별 유출인구의 직종 특성을 살펴보면, 유출 비율이 높은 직종은 대체로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의 전문가, 기술자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출비율이 낮은 직종은 1차 산업 종사자, 단순 기계 조작 기능직, 단순 노무직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 대도시와 수도권으로의 고학력·고숙련 및 고임금·고부가가치 창출 직종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향후 지방 중소도시-지방 대도시, 지방-수도권 간 직종 양극화 양상이 더욱 심화될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직종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역 차원의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